

# 양산 투표율·안산 단일화 무산 변수로

## 승부처 수도권·충북 초접전 여야, 조직력 총동원 바닥흙기



**무슨 소원 빌까** 10·28 재보선을 이틀 앞둔 26일 민주당 정세균 대표(오른쪽)와 양산 재선거 한나라당 박희태 후보가 경남 양산 통도사에서 열린 개산문화대제에 참석해 합장 기도를 올리고 있다. /연합뉴스

실제로 수원 장안의 경우, 여야는 상호 고발전을 불사하는 것은 물론 막판까지 각종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재보궐 선거는 향후 정국은 물론 각 당의 지도

### 내일 국회의원 재보선

10·28 재보궐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는 격전지인 수도권과 충북 지역에서 막판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수도권과 충북의 재선거 판세가 초 접전 양상을 보임에 따라 여야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는 등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26일 한나라당 정동준 대표는 이번 재보선의 최대 승부처인 경기 수원 장안을 방문. 출근길 인사는 물론 성균관대와 장안지역 시장을 잇따라 돌면서 표심잡기에 나섰다.

또한, 안상수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지역 경대수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원 유세를 하는 등 막판 ‘쌍끌이’ 득표활동을 벌였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이명박 정부는 전대미문의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선진국 진입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며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오전 ‘전략지역’인 경남 양산에서 지원활동을 벌인 뒤 오후에는 충북 지역 지원 유세에 나섰다.

정 대표는 이날 “국민께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이명박 정권의 일방 독주는 국론분열과 혼란만 야기하고 있

다”면서 “정권을 견제하고 심판하기 위해 제1야당인 민주당에 힘을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당의 사활이 걸려있는 충북 지역 지원유세에 집중했다.

현재 각 당이 주장하는 판세를 종합해보면, 한나라당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강원 강릉을 제외하고 4곳의 판세는 여전히 대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의 전통적인 지지기반인 경남 양산에서는 선거일 당일 투표율이, 경기 안산 상록 읍에서는 ‘야권 단일화’ 무산이 각각 막판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재보선 승부처인 수원 장안에서는 한나라당 박찬숙 후보와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의 지원을 등에 업은 민주당 이찬열 후보가 우열을 가늠할 수 없는 초박빙 접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재보선 판세가 혼미를 거듭하면서 각 당 지도부는 선거 당일 투표율과 막판 돌발변수가 승패를 가늠할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당은 조직력을 총동원해 ‘바닥흙기’에 나서는 동시에 선거 막판 ‘돌발 악재’를 차단하기 위한 내부 단속에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한편 선거가 막판으로 치달으면서 치열한 네티즌 공방이 펼쳐져 심각한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다.

# 전례없는 박빙... ‘투표율’에 촉각

## ‘일꾼론’ Vs ‘심판론’ 맞붙어 40% 넘을 수도

### 선관위, 투표율 높이기 나서

10·28 재보궐 선거가 막판까지 혼전 양상을 띠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투표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재보선의 경우 대선이나 총선 등 전국 선거에 비해 유권자의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에서 투표율이 당락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0년 이후 9차례의 국회의원 재보선 투표율을 살펴보면 투표율이 40%를 넘은 경우는 2001년 10월(41.9%), 2005년 10월(40.4%), 지난 4월(40.8%) 등 3차례로 집계됐다.

이번 재보선의 경우, 투표율이 40%대를 넘어서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막판까지 혼전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데다 여

당의 ‘일꾼론’과 야당의 ‘심판론’이 맞붙어 ‘홍행’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정치권에서는 투표율이 낮으면 조직표가 강한 여당 후보가, 이슈 부상 등으로 투표율이 높으면 야당 후보가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 재보궐 선거에서 이러한 경향이 증명됐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민주당은 지도부 차원에서 각종 지원유세를 펼치는 가운데 투표율 높이기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주당 이미경 사무총장은 “투표율 제고를 위해 출근 시간을 늦추거나 점심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에 협조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식이 이번 재보궐 선거에도 증명될지는 미지수다.

각종 변수들이 산재해 있다는

점에서 투표율이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는 “투표율이 높으면 야당에게 유리하다는 것은 이제의 속설에 불과하다”며 “이제 연령층에 따라 선거 경향이 뚜렷이 구분되지 않는 만큼 투표율에 의해 당락이 결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내부적으로 이번 재보선의 투표율을 40% 초반으로 잡고 ‘방문 홍보단’을 운영하는 등 투표율 제고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재보궐 선거는 여야의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다는 점에서 예상보다 높은 투표율을 기록할 것”이라며 “최소 30% 후반에서 높게는 40% 중반 이상의 투표율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정상회담 남북 접촉창구는 C목사”

### 한나라 윤상현 의원 주장

정치권에 무성히 퍼돌던 남북 접촉설과 관련 남북의 접촉 창구가 여권에 의해 처음 공개돼 관심을 끌었다.

한나라 윤상현 의원은 26일 국회 의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북 비밀접촉설과 관련, “내가 들은 바로는 남한 측의 접촉창구는 C목사”

라며 “북한 측 접촉 창구는 김정일의 인적인 K씨”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권력 실세가 한나라당의 모 의원을 만나고 싶다는 전갈을 전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며 유명한 장관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

이에 유 장관은 “아는 바 없다”고만 답했다.

윤 의원은 이어 “이번 남북 간 접

촉은 정상회담을 위한 접촉이 아니라 일상적인 비밀접촉일 것”이라며 “대화를 나누는 과정 중에 양측이 입장을 개진하다가 북한이 미끼로 정상회담의 운을 띄웠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 장관은 “북한 핵문제는 남북정상 간 회담에서 언제나 의제가 돼야 한다는데 확실한 의지가 있었다”면서 “남북정상회담이 이벤트성 행사이거나 정치적 의도가 되면 안 된다는데 공감하고 이명박 정부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대학편입의 해법은 '김영' - www.kimyoung.co.kr

10명중 7명만 합격하는 경쟁률 10배

2009년 편입 합격률 100%

상위권대학 "실전문제풀이반" 대특강

D-80 합격완성

기출문제는 물론, 예상문제를 통해 고난이도까지 완벽한다.

무료특강, 시사특강, 기초준비, 개강 11월 2일

편입영어, 외국어특강

김영 편입학원

부산광역시 중구 동대문로 11번길 27-1000

부산광역시 중구 동대문로 11번길 27-1000

세기보청기! 세계브랜드의 자부심을 세우다!

세계기스타·세기보청기

www.segicor.co.kr

1588-8429 / 052-272-9108

010-28-9288-9288